

[기고] 농업 위기 극복,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 임재형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 ⌚ 승인 2025.10.13 13:38

매일일보 | 올해 초 신문지상에는 청년 농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잇따라 보도됐다. 빚더미에 신음하며 농업의 꿈을 접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채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청년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일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농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해남 지역 생산이 많은 고추의 2024년 영농시설비는 10a당 전년 대비 42.7% 급증했다. 영농기계화와 시설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농가들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만약 경영에 실패할 경우,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농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농가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4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거나, 최근 연간 자연재해로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다.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으로 공부상 등재된 농지와 함께 축사,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부지 등 농업용 시설 부지도 포함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더라도 최장 10년간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환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환매권이 보장된다. 특히 전체 환매(일시납·분할납)뿐 아니라 지원금액의 50% 이상 분할 환매도 허용되어 농가에게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임재형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2015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98건의 농가와 환매계약을 체결, 실제로 농업인들이 땅을 되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 사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업 경영난 극복과 재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난에 처한 농업인이 현장을 지키고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미래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형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